

금호타이어 화재·대선 이슈 악용 ‘노쇼 사기’ 판친다

이달 광주·전남 23건·4건 접수 ‘이 후보 캠프’ 속여 현금 입금 광주·여주시청 공무원 사칭도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예약이나 주문을 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등 이슈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노쇼 피해 건수는 84건(광주 61건·전남 2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광주는 1월 1건, 2월 4건, 3월 2건, 4월 54건으로 4월 들어 노쇼 피해가 급증했으며 전남 역시 1월 1건, 2월 0건, 3월 1건, 4월 21건을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달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23건, 4건이 발생해 노쇼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쇼 사기’ 유형은 군부대를 사칭해 단체 훈련을 명분으로 도시락을 대량 주문하고 평소 거래하던 전투식량 납품업체에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한 뒤 훈련 종료 후 현금으로 정산하겠다고 사라지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 시기를 틈타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 인원의 숙박과 도시락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명함·어깨띠·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을 주문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앞둔 지난 1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단체 식사를 예약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기범은 다음 날 이 후보를 포한 20여명의 단체 식사를 예약했고 피해자는 5·18 기념식을 마친 이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이 식사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피해자는 이 후보가 원하는 고가의 양주를 대신 구매해 준비해주면 식사 대금과 함께 결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2,400만원을 특정 계

좌로 입금했다. 이후 예약자와 연락이 두절됐고 피해자는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됐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을 사칭한 사례도 있었다.

남구 한 음식점 업주는 “김치점 15인분, 공깃밥 17개를 진화하 한창인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문 전화를 받았다.

소방관들을 위한 음식이라는 말에 평소 가격보다 저렴하게 결제하기로 했는데, 주문자는 음식을 가져가기로 한 시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주문자는 뒤늦게 음식점에 연락해 “가고 있다”는 말과 함께 특정 업체의 전화번호를 남기며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사칭한 ‘노쇼’ 사기 수법도 잇따랐다.

최근 광주시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기범은 지역의 한 식당을 예약한 뒤 특정 고급 와인을 구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방문하면 식사비와 함께 와인값을 결제하겠다고 특정 주류업체에 송금을 유도했다. 하지만 해당 예약은 사실무근이었다.

여주시청 총무과를 찾은 한 민원인도 공무원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노쇼 사기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민원인은 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된 명함을 보여주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물었지만, 명함에 적힌 이름의 직원은 여주시에 없었다.

그는 자신을 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급하게 심장제세동기를 대신 구매해주면 곧 예산 처리를 해주겠다”는 부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노쇼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경찰청도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경보를 발령, 서부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기 수법이 광주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낯선 단체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며 “시는 향후 모니터링과 피해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대놓고 잠자기 대회 21일 조선대 동아리 'ABC 마케팅' 주최로 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대놓고 잠자기 대회'에서 시민과 학생 참가자들이 낮잠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금타 광주공장 화재 원인규명 수사 착수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 구성 안전관리 책임 여부 등 조사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원인을 조사할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전담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36명으로 구성됐으며, 화재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설비 및 소방 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 내부 방화문 작동 여부 등 화재 원인과 경위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화재 발생 지점에 대한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관련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합동감식은 불이 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없는지 안전성을 확인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공장 측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20일 오전 11시 50분 완전히 진화됐다. 화재 발생 이후 76시간 39분(사흘 4시간 39분) 만이다.

화재 당시 2공장에는 타이어 원료로 사용하는 생고무 20t 가량이 보관돼 있었고 생고무를 예열하는 산업용 오븐 장치에서 원인 불명의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최환준 기자

중학생 태운 체험학습 버스 사고...청소년수련원 가스누출도

전남서 사건사고 잇따라

전남에서 중학생 23명을 태운 25인승 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수풀에 빠지는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1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2분께 신안군 도초면 한 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미끄러져 도로 옆 수풀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체험학습을 가던 신안 소재 중학교

학생 7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버스 안에는 체험학습을 위해 지역 생태 교육원을 다녀오던 학생 22명, 교사 1명, 운전 기사 1명 등 총 24명이 탑승 중이었다.

당국 등은 주행 중이던 버스가 회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 51분께 보성군 봉산리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두통, 어지럼 증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중학생 10명을 병원으로 이송,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건물 외부에 있는 LPG(액화천연가스) 밸브 교체가 이뤄졌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가 수련원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점검 결과 가스 유출 정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무더위...동부권 최대 20mm 비

22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 동부지역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내리겠다.

2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22일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22일 아

침 최저기온은 18~20도, 낮 최고기온은 23~27도로 예보됐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7도, 낮 최고기온은 21~25도가 되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시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및 감속 운행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민 기자

<p>쌍촌동 (4층건물) 매매</p> <p>상가 주택</p> <p>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p> <p>▶ 원가 급매</p> <p>13억 9억8천만</p>	<p>장성토지 (담양)</p>  <p>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p> <p>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p>	<p>상가 매매 (상무지구)</p>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 유흥기능 (룸,노래홀,홀덱바)</p> <p>▶ 6층 (전용 60평)</p> <p>(보2천, 월수익 250만)</p> <p>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p>	<p>법원 경매</p> <p>★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p> <p>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p>
<p>010-6670-9800</p>		<p>062-382-5500</p>	